

해외 간척사업의 최근 동향

- 간척사업은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근대적 해안 간척사업은 16~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됨
 - 우리나라에서는 13세기 고려시대 때 강화도에서 간척사업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음
- 네덜란드, 일본 등 간척 선진국은 간척 가능면적의 90%를 시행하였음
 - 우리나라는 전체 간척 가능면적이 4,000km²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40%인 1,600km²를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음
- 간척사업은 20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부를 창출하는 대표적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, 20세기 후반에 와서 환경보호,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음
 - 1960년대 이전까지는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음
 - 1970년대 와서는 산업·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됨
 - 1980~1990년 이후 간척사업은 침체기에 들어섰으며, 기존 간척사업지구들도 용지 일부를 생태공원 등 보전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

1. 줘다지 지구 (Zuiderzee, 네덜란드)

배경

- 20세기 해안간척의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1913년 착공
- 농경지 조성, 홍수피해 방지, 수자원개발 및 배수개선, 주거공간 및 휴양지 제공 등 다목적 사업

사업추진

- 방조제 완공(1932년) 후 3,700km²(11억평)의 국토를 확장
- 이 중 1,680km²(5억평)에 대하여 육지화 계획을 수립
- 1970년대에 와서 도시, 관광·위락, 자연보전적 토지이용 비율을 높이는 등 토지이용 방향을 전환
 - 농경지 비율을 당초 87%에서 50%로 감축

최근 동향

- 조류 등 생물종 보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5개의 사업지구 중 1개 지역은 개발을 유보
- 습지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Oostvaardersplassen 자연 보전지역을 지정하여, 북서 유럽지역에서 국제적 희귀종, 중요종의 안정적 서식지 역할 수행

2. 델타지구 (Delta, 네덜란드)

배경

- 1953년 대홍수로 500km의 기존 제방이 파괴되어 이 지역주민 1,800여명이 희생되고, 지역의 대부분이 침수되면서 본격적 사업착수
- 기존 제방의 보수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간척사업 계획을 구상

● 사업추진

- 1958년 국회에서 Delta Act 제정
- 1967년 Eastern Scheldt 유입구를 차단시키는 방조제 공사가 착공되어 1978년 완공
- 총면적 670km² 중 농경지는 150km²
- 이후 Neeltje Jans와 Noordland간 추가 방조제 완공

● 최근 동향

- 어장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Eastren Scheldt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여론 고조
-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홍수의 위험이 있을 때 외에는 Eastren Scheldt를 개방토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

3. Holkham 지구 (영국)

● 배경

- Burnham Norton과 Blakeney 사이의 Northfolk 해안 북부에 위치한 England 최대의 습지(40km²)

● 사업추진

- 모래언덕과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선을 따라 1639년부터 제방을 축조
- 1859년 제방 완공으로 8km²의 농경지 조성

● 최근 동향

- 1967년 농경지 일부를 습지로 전환
 - 전체면적의 5%를 항상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유지
 - 조간대의 갯벌부터 갈대습지, 초지, 숲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섬금류 및 기타

조류의 다양한 서식처 제공

- Holkham Estate와 협력하에 국가자연보전지구(National Nature Reserve)로 관리

4. 아키타 간척지 (秋田, 일본)

배경

- 1940~1950년대 국제식량농업기구(FAO) 조사단에 의하여 간척사업 타당성이 인정
- 농림성 간척사업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, 신농촌 건설사업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

사업추진

- 동서 12km, 남북 27km의 220km² 규모로 이 중 육지 이용면적이 172km²
- 토지이용은 농경지 69%, 취락 4%, 시설용지(공장, 관광시설 등) 21%, 공공시설용지 6% 비율

최근 동향

- 관광 프로그램의 적극개발
 - 전기자동차경기(5월), 특산물 판매(7월), 보트경주(연 4회) 등 이벤트 관광상품 개발
 - 개방형 방조제 시설 및 간척 박물관
- 일본 최초의 초원·조류보호구를 지정 관리(200여종 조류 서식)
- 생태공원 조성
 - 중앙 연약지반부에 5만평 규모로 조성
 - 물을 재순환 방식으로 활용
 - 식물원, 수목원을 조성하여 지역 대표수종 및 고산식물, 야생식물, 수경재배식물 등을 전시

국토연구원 양하백 연구위원 (hbyang@krihs.re.kr, 031-380-0184)